

지역 매아리

부안군 새만금지원협의회

전북연구원 방문 발전방안 건의

부안군 새만금지원협의회(위원장 이영택)는 4일 전북연구원을 방문하여 김선기 원장과 면담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새만금과 부안의 공동발전 방안을 건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협의회가 23건의 신규사업 발굴 및 확정 이래 진행해온 유관기관 대상 건의서 발송 및 방문건의의 일환이다. 주요 신사업으로 △H호 방조제 도로 리모델링을 통한 관광인프라 개선 △계화산 휴양형 관광지 조성 △주민 생활편익을 감안한 지역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량 증대 △공공주도사업형 관광레저용지 조성 추진 및 스포츠 관련시설 도입 등이 강조되었고, 그 외 부안군 현안으로 △불등마을 인근 폐기물시설 이전 △새만금 관련기관 청사 부안이전도 건의되었다.

이영택 위원장은 건의 요청에 응해준 김선기 원장님과 직원들께 감사사를 표하며 "이번 건의를 통해 부안군 어린이 생계터 전이었던 새만금이 발전될 수 있기를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가구주택 기초조사 실시

정읍시는 내일부터 25일까지 지역 내 모든 가구와 주택을 대상으로 '2019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로 2번째 실시하는 가구주택 기초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고 정읍시가 실시한다. 2020년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농림·어업 총조사를 대비해 모든 가구의 기초정보를 파악해 행정자료의 보완과 조사구 설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다.

조사 대상은 조사기준일 현재 지역 내에 주소지를 둔 모든 거주와 가구로 빈집을 포함해 5만4810여 가구다.

조사항목은 12개 항목으로 기본항목 4개(▲주소 ▲조사구분 ▲거처종류 ▲조사대상 여부), 특성항목 8개(▲빈집여부 ▲거주가능 가구수 ▲건축연도 ▲건물층 옥탑 여부 ▲총방수 ▲난방시설 ▲주거시설 ▲농림어업 여부)다.

조사방법은 조사원(46명)이 태블릿 기기를 활용한 방문면접조사(CAPI)와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 전화 조사(CATI) 방법을 병행 실시한다.

태블릿 PC를 통한 전자 조사로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조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호남의 금강 매력에 '풍덩'

정읍시, 한국여행작가협회 초청 팸투어 진행... 무성서원 등 주요 관광지 홍보

정읍시는 4일 (사)한국여행작가협회 회원 21명을 초청해 관광명소로서 정읍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팸투어를 진행했다.

시는 팸투어를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여행작가들에게 지역 내 우수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주요 대표 관광지를 홍보했다.

이번 팸투어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성서원과 정읍시의 주요 관광지인 내장산 국립공원 등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먼저 태산신비문화의 중심인 무성서원을 찾아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 보고, 신라 시대 대학자인 고운 최치원 선생의 공적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 시는 무성서원 관광 활성화 방안을 위한 마케팅 계획을 설명하고 여행작가협회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여행작가협회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한 정읍의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기로 약속했다.

이어, 지역특산물을 활용해 만든 정읍 대표 음식 귀리떡갈비를 맛본 후 가을옷 갈아입은 내장산을 찾았다.

호남의 금강이라고 불릴 만큼 단풍이 아름다운 내장산에서 울긋불긋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을 즐기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회원들은 오색 가을옷 입은 단풍에



정읍시가 4일 한국여행작가협회 회원 21명을 초청해 관광명소로서 정읍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한 팸투어를 진행했다.

골려 산책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절경을 담으려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바빴다.

한편, 2006년 창립된 한국여행작가협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 등록된 전문 여행작가 단체다.

방송과 신문, 잡지, 사보, 인터넷사이트 등의 각종 매체에 여행기사를 기고하거나 여행 서적을 저술한 국내 전문 여행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여행 문화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여행지를

## 권익현 부안군수, "청렴 공직자 최우선 가치"

권익현 부안군수가 청렴은 공직자의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하며 청렴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권 군수는 취임 후 청렴한 부안 만들기를 강조한 뒤 읍면별 친절·청렴교육, 공직자강화 및 청렴도 향상 자체교육, 전 직원 대상 법제처 청렴·법제교육, 인허가 민원부서 친절 향상 토론회 개최 등 청렴문화 확산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청렴부안혁신위원회 발족, 청렴도 향상 결의대회, 청렴거울 배포, 전 직원 청렴 OX퀴즈 등 청렴문화 조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권 군수는 동절기 안전점검 철저, 정부 및 전북도 정책동향 파악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 각종 사업 추진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철저 등을 강조했다며 보건복지부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 및 국토교통부 '일자리 로드맵 2.0' 등과 관련한 지역 연계방안 마련 등을 언급했다.

특히 권 군수는 "인허가 분야, 보조금 등 민원처리와 관련된 청렴도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며 "이를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부안군을 만들자"고 밝혔다.

권 군수는 "인허가 분야, 보조

## 고창군 가을철 산불 방지 총력... 비상근무 체제 돌입

고창군은 산불예방을 위해 지난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종합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41명, 감시원 56명을 배치해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했다. 또 고창군 흥덕면 용반리 산불헬기 계류장에 전라북도에서 임차한 헬기를 배치해 산불예방 홍보와 초동진화 활동에 힘쓰고 있다. 특히 선운산, 방장산 등 관내 11개 노선 65km의 주요 등산로에 입산통제 구역이 지정 고시됐다.

이를 어기거나 허가 받지 않고 산림 내에서 불을 놓을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산 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 군 홈페이지에서 입산 가능여부 확인 후 입산하고, 라이더 등 인화물질을 소지해서는 안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119 또는 군청(560-2604)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산불 없는 고창군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달라"를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톡톡 튀는 청소년의 시각과 목소리

### 고창 청소년기자단 소식지 '성내 아그들' 창간호 발행

명품 수박으로 유명한 고창 성내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청소년의 시각으로 담은 소식지 '성내 아그들'이 탄생했다.

4일 고창군 성내청소년문화의집에 따르면 성내지역청소년 15명으로 구성된 기자단이 지난 1일자로 '성내 아그들' 창간호를 발행했다. 창간호에는 성내청소년문화의집 소개, 청소년운영위 활동, 운영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다뤘다.

앞서 청소년기자단은 지난 9월 발대식에 이어 홍보미디어 활용·기자작성법을 교육받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취재 활동에 들어갔다.

'성내 아그들'은 청소년기자단

이 기획부터 취재·인터뷰·사진 등을 전담한다. 청소년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 느껴볼 수 있다. 편집과 인쇄를 도와주는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들도 청소년의 시각과 고유의 화법을 훼손하지 않도록 편집과 수정을 최소화했다.

특히 기자단 활동을 통해 언론 분야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의 직업을 간접체험할 수 좋은 기회도 되고 있다. 소식지에 담긴 기사는 QR코드를 활용해 문화의집 공식 페이스북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기자단 이진태(14·성내중1)군은 "스스로 기사를 써 생각해 보고 내가 전하고 싶은 소식



를 주변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들이 참 멋지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청소년의 시선을 기사로 담고 열심히 활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의집 관계자는 "톡톡 튀는 청소년의 시각과 목소리를 우리 지역사회의 따뜻한 이야기를 널리 알리는 데 좋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고창군, 중국 조장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추진

고창군 청소년들이 조장시를 찾아 세계를 보는 안목을 넓히고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는 홈스테이에 나섰다.

4일 고창군은 지난 10월 31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관내 중학생 20명과 인솔교사 2명, 대외협력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교류 방문단이 중국 조장시에서 홈스테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창군이 주관해 진행된 청소년 해외 홈스테이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홈스테이 참가 학생은 관내 중학교별 인원을 배정하고 해당 학교장 추천을 받아 최종 선정됐다.

홈스테이 첫날인 지난 1일에는 중국 조장시 시정부 행정서비스센터 견학 및 조장시대학교 투어, 청소년 교류 개최식이 진행됐다. 개최식에는 양 지역 청소년과 교사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준비 조장시대학교 교장 환영사,

방문단 대표 답사, 선물교환, 중국문화 체험 수업(서예, 그림, 전통악기 등)등으로 이뤄졌다.

고창 학생들은 중국 파트너 가정에 머물면서 식사와 숙박 등 가정생활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후 조장시 세계문화유산 태아장 문화유적 견학 후 제녕시로 이동해 공자유적지와 공자박물관 등을 탐방했다.

내년 여름방학 때는 이번 홈스테이에 참여한 고창군 학생 가정에 중국 청소년 20명을 초청해 '제2회 청소년 홈스테이'가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고창군과 중국 조장시는 2003년 양국 자치단체 간 우호교류 협의회 체결 후 대표축제 상호방문·산업·경제·교육·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정외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 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GIFT SET 1: 750ml 2ea, 2ea/16%

GIFT SET 2: 750ml 2ea, 1ea, 오프너/12%

GIFT SET 3: 750ml 1ea/12%

GIFT SET 4: 500ml 2ea, 2ea/12%

GIFT SET 5: 375ml 5ea/13%

GIFT SET 6: 500ml 1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